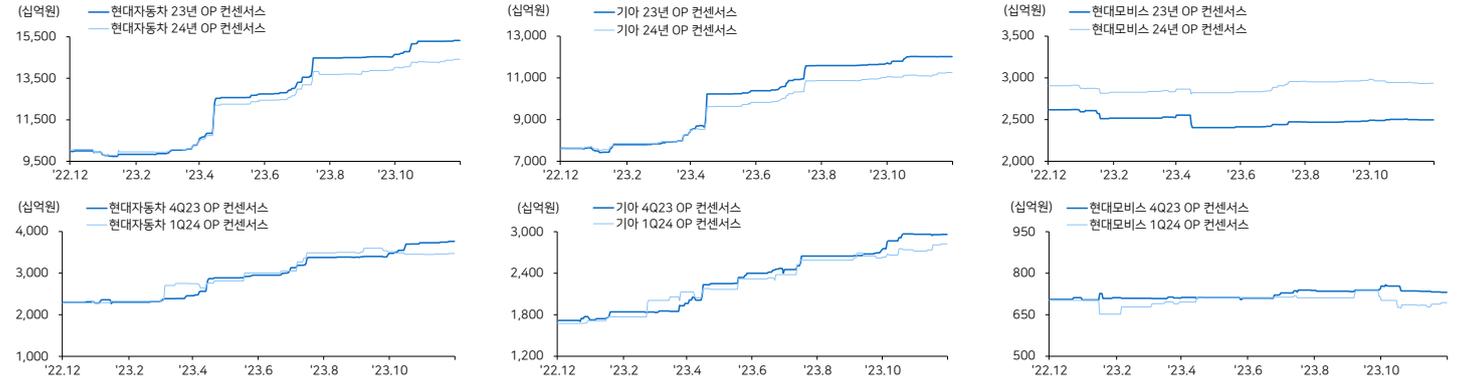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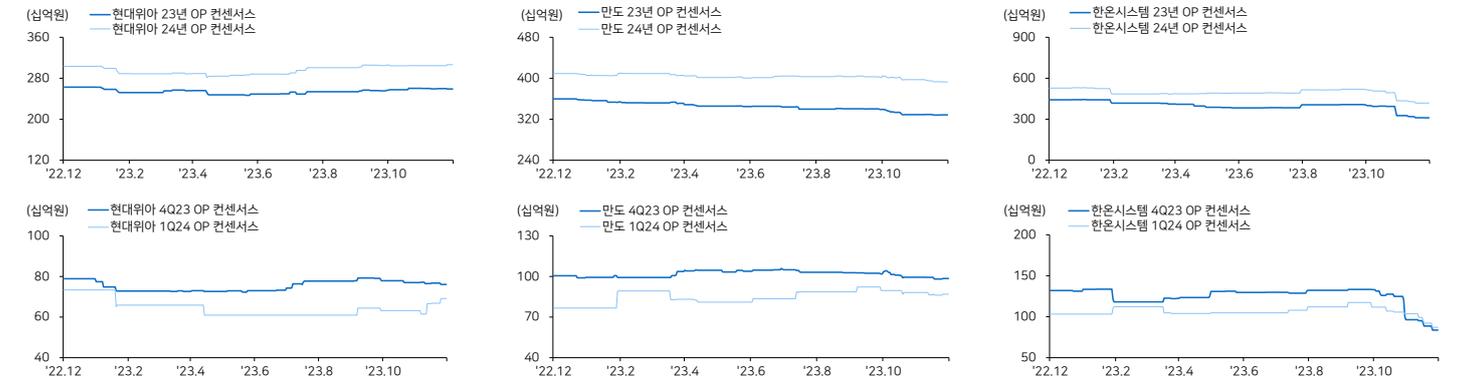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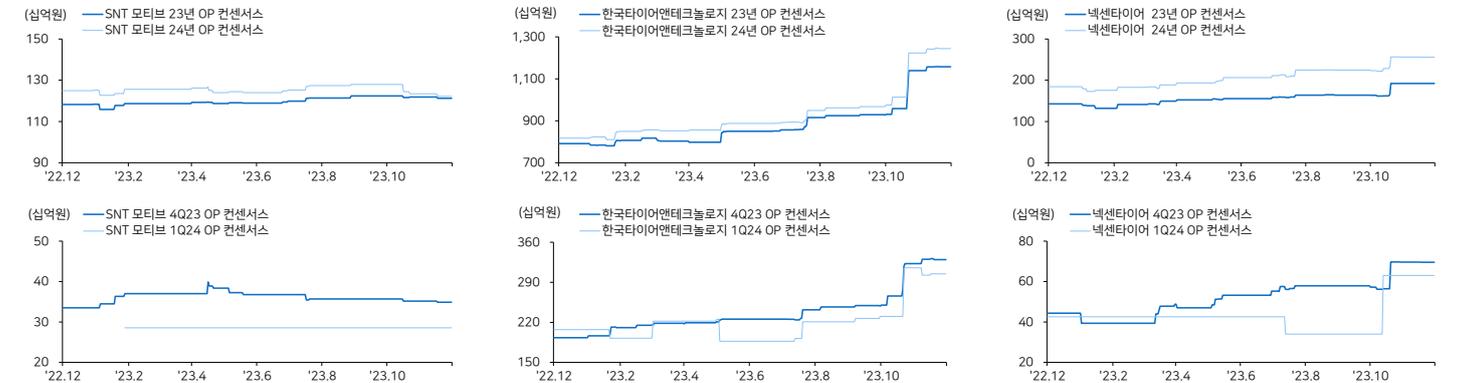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Tesla unveils Optimus Gen 2: its next generation humanoid robot (Electrek)

테슬라가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 새로운 버전은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장착, 중전 버전보다 30% 더 빠른 걸음이 가능하며 10kg 가량 줄어든 무게로 균형 감각을 개선. 선제적으로 제조 공정 투입 후 유용성 입증 시, 외부 판매를 고려 중
<https://han.gl/FpYtVY>

Tesla partners with Uber to offer \$3,000 discount on its electric cars to drivers (Electrek)

테슬라는 우버 파트너(운전자)에게 최대 3,000 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할 방침. 테슬라는 우버의 자체 차량 구매 플랫폼 '마켓 플레이스'에 파트너를 추가하여 올 12월 말까지 인도된 차량에 대해 할인된 가격을 적용할 예정
<https://han.gl/cTHfPe>

'한국타이어' 형제난에 조양래 등판... 차남 백기자 사저 (조선일보)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한국엔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그룹)의 조양래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나선 실정.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일군 회사가 사모펀드(MBK)에 넘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백기자를 사저
<https://han.gl/fyAecl>

Volvo CEO says what lack of EV demand? Electric car orders are strong (Electrek)

볼보 CEO는 전기차 수요 부진에 반박하며, 새로운 모델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촉진할 것이라 발언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환경에도 자사의 신형 EX30과 C40를 비롯한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 수요가 고무적인 점을 강조
<https://han.gl/eYRbK>

현대차, 크레타EV 인도 시작 출시 6개월 앞당긴다 (더투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기존 계획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긴 내년 하반기 인도 전기차 시장에 크레타EV(프로젝트명 SU2 EV)를 출시할 예정. 현지 전기차 성장세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른 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han.gl/AgEwBg>

Tesla Giga Mexico construction gets permit approval (Teslarati)

Milenio에 따르면 테슬라가 멕시코 환경부로부터 토지 사용 및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프로젝트 토지 구획을 확정 가능. 업계는 해당 공장이 2.5만 달러 전기자의 생산 허브로 전망
<https://han.gl/IOExcM>

잘 나가는 미 리오트... "올 30만대 판매 목표 벌써 달성" (ZDNet)

리오트는 11월 4만1천800대를 판매, 올해 3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며 12월 5만 대 판매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힘. CPCA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연간 누적 차량 인도 대수는 32만5천677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https://han.gl/FuqBqC>

주행거리보다 가성비... 내년 '3000만원대 전기차' 각속전 (중앙일보)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반값 전기차'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세가 다소 추축한 가운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등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3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계획
<https://han.gl/HwglRh>

장시간 잘 팔고 일해도 거른...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국내 도입 (매일경제)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울산공장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 테스트를 진행. 이번 하반기 국내 생산공장 투입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장 테스트 격으로 추진 중
<https://han.gl/aAnMNT>

현대차, 중공장 올해 예상 가동률 23%...기아 25% (더투루)

GlobalData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중국 공장 가동률은 각각 23%, 25%에 그칠 전망이다. 현지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로컬 브랜드 등 현지 판매 상위 '톱10' 브랜드와 비교해 최대 69%나 낮은 것으로 집계
<https://han.gl/VSGpPt>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